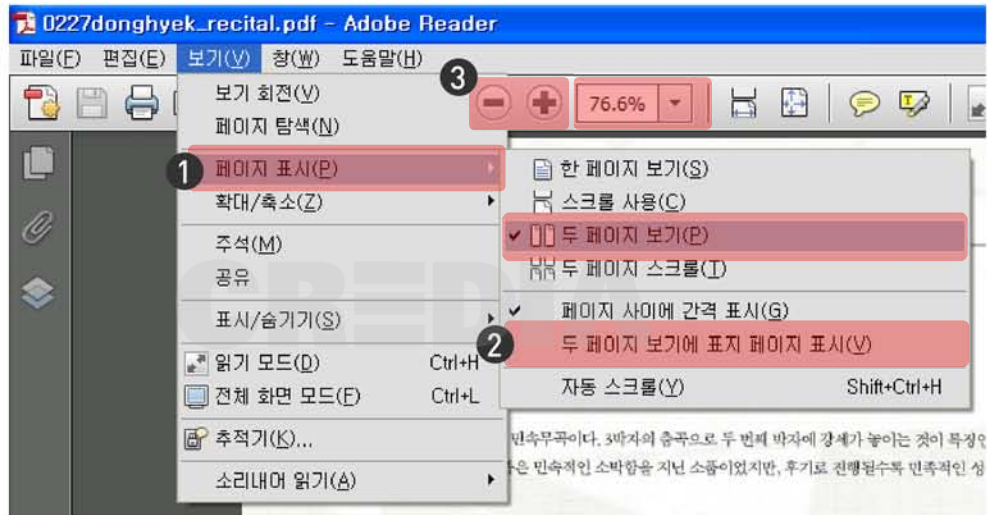


CREEDIA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공연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아래 안내와 같이 설정해서 보시면 더욱 편하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Guide 1 프로그램북 2페이지씩 보기
(프로그램북이 한 페이지씩 보일 경우)



- ① PDF reader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 선택
- ② 메뉴바_보기_페이지표시_두 페이지 보기에 표지 페이지 표시 선택 해제
- ③ 원본 사이즈로 보기
 확대 및 축소는 -, + 버튼 클릭

Guide 2 프로그램북이 2페이지씩 보일 경우
다른 설정 없이 보셔도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MAS CONCERT

Yuhki Kuramoto

& Friends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동승하며
그리스와 이탈리아에서 펼쳐지는
음악과 휴식을 함께 하는 꿈 같은 여행.
지상과 선상을 오고 가는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ONLY
클럽발코니 &
씨엘로스

- 여행 일자 : 2020년 9월 19일(토) ~ 30일(수) (10박 12일)
- 여행지 : 마요르카(스페인) - 나폴리(이탈리아) - 팔레르모 - 발레타(몰타) - 산토리니(그리스) - 아테네 - 헤라클리온(크레타)
- 상품가 : 1,680 만원 (현금가, 발코니캐빈 기준)
인천 - 마요르카 왕복 항공료 별도

PROGRAM

- [공연1]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협연 : 예핌 브론프만)
[공연2] 빈 필하모닉 &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 / 아테네 헤로데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공연3] 안드레아스 샤거 & 리디아 바이흐 리사이틀 /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공연4] 오페라 <코지 판 투테> / 팔레르모 마시모 극장
[공연5] 베이스-바리톤 어윈 슈로트 리사이틀 (선상 공연)
[공연6] 알렉세이 이구데스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선상 공연)
[공연7] 빈 필 체임버 콘서트 (선상 공연)

빈 필하모닉 공개 리허설
연주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 렉처

- * 음악평론가 유정우 전 일정 동행 예정
- * 본 여행일정과 프로그램은 아티스트 또는 현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안내사항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다양한 기항지와 선상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음악여행
빈 필하모닉과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가 함께 하는 선상음악회와 오프
리허설을 비롯,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산 카를로 극장과 마시모 극장, 고대의
역사와 신비를 간직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헤로데스 아티쿠스 야외극장
기항지 콘서트까지 더욱 풍성한 음악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평론가 유정우의 생생한 클래식 이야기
홍부외과 전문의이자 클래식 음악평론가로 활동하는 유정우가 전 일정
동행하며 유럽의 음악, 역사, 그리스 신화를 아우르는 깊고 넓은 지식의 인문학
강의를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문의 1577-5266 010-9799-5266 www.clubbalcony.com



CHRISTMAS CONCERT
Yuhki Kuramoto & Friends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구라모토 &
친구들

2019년 12월 22일 (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9년 12월 24일 (화) 오후 8시

롯데콘서트홀

2PM Sunday, December 22, 2019

Concert Hall, Seoul Arts Center

8PM Tuesday, December 24, 2019

Lotte Concert Hall

피아노, 유키 구라모토

Yuhki KURAMOTO, Piano

바이올린, 장유진

YooJin JANG, Violin

피아노, 한지호

Chi-Ho HAN, Piano

지휘, 백윤학

YoonHak BAEK, Conductor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주최 **CRE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G**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려는 이 날에,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로 기쁩니다. 한국에서 처음 콘서트를 한 지 20년, 그리고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에 서울과 여러 도시에서 공연을 해 온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의 짧고 술 적은 수염도, 완전히 하얗게 되어 버렸는데요. 굳이 고르자면 산타클로스로서는 검은 색보다 흰 색의 수염 쪽이 더 어울리는군요. 공연 자체가 물건은 아니지만, 오늘 연주하는 음악이 관객 분들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이 되고 그것이 일종의 선물을 대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끼리나 커플, 혹은 가족과 함께 오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 같은데요. 혼자 오신 분도 환영입니다. 외롭지 않아요.

들려오는 음악과 관객 한 분이 일직선으로 연결됩니다. 그 직선의 주변에, 음악 자체가 공연장의 모두에게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연장 내부 전체가 환상적인 멋진 공간입니다. 낭만이나 추억에 잠기는 시간이 되기도, 눈 덮인 숲이나 거리를 가볍게 걸어가는 정경을 그려보기도 하며 모두가 자유롭게 상상해도 좋습니다. 오늘 콘서트가 여러분께 환상적이고 깊은 추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공연의 제 1부는 백윤학 선생님이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씨가 베토벤 로망스 제 2번을, 그리고 피아니스트 한지호씨가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 23번 전악장을 연주합니다. 모두 클래식 명곡들이네요.

베토벤의 로망스는 서정적이고 기품있는 명곡입니다. 바이올린 솔로에 오케스트라 반주가 붙어 있어서, 협주곡의 느린 악장과 같은 맛이 있습니다. 로망스라는 단어는 그대로 타이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장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요. 클래식에서도 많은 작곡가들이 '로망스'라는 단어를 타이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망스라는 말은 넓은 의미를 지니며 유래도 복잡한 것 같습니다. 멋진 단어이지만 저에게는 의미가 약간 모호한 느낌이 드는 이상한 단어입니다. 기쁨이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아가서 이야기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경우에 이야기에는 실연의 심정을 표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의 작품에도 '로망스'라고 이름 붙인 곡이 있습니다. 제 작품의 인상은 그 중에서도 사랑이 성취된 상태보다는 동경과 연심의 안타까움이 얽혀있는 기분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건 그렇고, 모차르트는 피아노 협주곡을 여러 작품 남겼는데요, 특히 제 23번 가장조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오케스트라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축제 때에는 정기 연주회도 있었고, 관현악곡뿐만 아니라 협주곡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이었을 때, 굉장히 우수한 2학년 선배가 피아노 독주를 맡아 이 모차르트 협주곡을 연주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피아노가 아니라 첼로를 연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고등학생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였기 때문에 좋은 연주를 위해서는 긴 연습시간이 필요해서,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실제 경험으로서 협주곡의 반주 부분을 연주하며 곡을 즐겼습니다. 흘러가는 듯한 산뜻한 느낌의 곡이라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즉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해에는, 이번에는 피아노 독주를 맡아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제 5번 '황제'를 솔리스트로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오케스트라'라고 하더라도 그 총 인원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고전파 시대와 그 후 낭만파 등 근대음악작품에서는 필요한 악기의 종류나 수가 상당히 다르지요. 하이든이나 모차르트 시대의 관현악 악기 편성은 근대와 비교하면 작지만, 음악 그 자체를 들려주기에는 충분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관현악'이라는 장르의 작품에는 일반적으로 피아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죠.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솔로악기와 함께 연주하고 이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의 관현악 파트를 위해서 작곡가(혹은 현대에서는 편곡자)가 각 악기에 알맞은 음역, 음량이나 음색을 고려해가며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 유키 구라모토도 현악이나 관현악을 동반한 작품들을 작곡해왔는데, 표현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클래식 피아노 협주곡 규칙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오늘 공연 제 1부에서는 우아한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작품을, 그리고 제 2부에서는 유키 구라모토의 낭만파에 가까운 작품을 즐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향이 멋진 홀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세계 100대 골프장이 있는 클락

CLARK

대자연이 즐거움을 더해주는 곳, 클락을 만나다

대한항공 필리핀 클락 매일 운항
클락의 모든 즐거움, 아침 출발로 여유롭게 누리세요



www.koreanair.com



PROGRAM

Part 1.

베토벤

L. v. Beethoven

바이올린 로망스 2번 No.2, Op.50

Romance in F Major, Op.50

장유진, 디토 오케스트라

파가니니

N. Paganini

바이올린 협주곡 2번 3악장 - 라 캄파넬라

“La Campanella” from Violin Concerto No.2, Op.7

장유진, 디토 오케스트라

모차르트

W. A. Mozart

피아노 협주곡 23번 No.23, K.488

Piano Concerto No.23 in A Major, K.488

I. Allegro / II. Adagio / III. Allegro assai

한지호, 디토 오케스트라

Part 2.

유키 구라모토

Yuhki Kuramoto

On A Sentimental Snowy Day

유키 구라모토, 스트링

Violin with Piano

Warm Affection

Tears For You

유키 구라모토, 장유진

Piano solo

Fantastic Night

Rudolph The Red Nosed Reindeer

When You Wish Upon A Star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유키 구라모토

Piano and Orchestra

In The Evening

Eternal Love

Soaring

Paris, Winter...

Lake Louise

유키 구라모토, 디토 오케스트라

*위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연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Please do not record or take photos during the concert.



PREVIEW

유키 구라모토, 그의 십이면체 주사위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멜로디. 그것이 약 20여 년 전 내가 유키 구라모토의 음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최초의 인상이었다. 그 인상은 오랜 시간을 건너 유키 구라모토라는 사람에 대한 인상으로 발전했다. 듣는 누구든지 그의 마음 한 곳을 건드리고 마는 음악가. 삶의 장면 장면을 짚어내고 거기에 형태를 부여하는 화가. 매년 새로운 음악을 들고 나오면서도 매년 듣는 이의 노스탤지어를 자극하는 성실한 예술가. 98년 우리나라에 처음 음반이 수입된 이래로 발표된 수많은 곡들이 그렇게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반짝거리고 있다. 그 유명한 'Lake Louise'의 물결에 비치는 청명한 햇빛 조각들이나, 'Romance' 위로 비치는 누군가의 뒷모습, 'On A Sentimental Snowy Day'에 쏟아져 내리는 화이트아웃된 슬픔은 경험의 여부와 상관 없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한 그리움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유키 구라모토와의 만남은 설레면서도 극도로 긴장되는 작업이었다. 유튜브 채널 <겨울서점>에 올라갈 콜라보레이션 콘텐츠를 위해 기획을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잠정적으로 이 만남을 '섬세하고 예민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와의 만남'이라고 가정하고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그가 까다로운 사람임을 가정하는 쪽이 준비에 훨씬 유리했다. 유키 구라모토의 이름에 걸맞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한 달 여였다.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영상의 상이 있었다. 서울책보고에 미리 방문해 앵글과 조명 등을 확인하고, 영상 구성안을 크레디아와 촬영팀, 편집자에게 공유하고, 촬영팀에게 일일이 각 순서에 맞는 앵글과 움직임을 요청하고, 편집자에게도 직접 그린 스토리보드와 꼼꼼하게 쓴 디렉션 노트를 전달했다. 테이블 위의 작은 소품부터 가장 중요한 음향까지 크레디아와 긴밀히 협의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온몸이 피곤할 정도의 긴장 상태에 도달했을 때, 유키 구라모토가 촬영 현장에 도착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만났던 정중하고 인자한 그의 모습이 눈 앞에 있었다. 그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오랫동안 한국을 방문한 경험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인사였다. 몇 번이고 서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눈 뒤 그를 촬영 장소로 안내했다. 여러 현책방의 현책을 모아서 팔고 있는 서울책보고의 근사한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마련된 화려한 책 트리를 구경하기도 하는 유키 구라모토의 모습은 여지 없이 책을 사랑하는 예술가의 모습이었다.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돌입하자 그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촬영이 지속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풀린 덕분인지 혹은 지켜보고 있던 여러 스태프들 덕분인지, 준비한 질문을 건넨면 이웃집의 젠틀한 할아버지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중간 중간 NG가 나가나 해도 당황하지 않고 넘어갔고, 답변을 할 때도 눈을 보고 차근차근 답하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피아니스트의 가장 솔직한 모습은 연주할 때 나온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 날 촬영에서는 유키 구라모토가 앵콜까지 총 4곡을 연주하기로 되어 있었다. 미리 고른 곡에 맞춰 골라간 책을 소개하고 일부분을 낭독하면 유키 구라모토가 바로 이어서 연주를 하는 식이었다. 차분하고 진지하게 연주하는 모습은 처음 기획 때 예상했던 대로 섬세하기 이를 데 없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마음에 차는 연주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 번 같은 곡의 연주를 반복했다. 한 음 한 음을 듣는 이의 마음에 새기려는 연주였다. 현장의 모두가 피곤을 잊고 빠져들었다. 연주가 끝난 뒤에는 화룡점정이라고 해도 좋을 마무리 인사가 남아있었다. 마지막 인사 부분 촬영 때 조심스럽게 크리스마스 머리띠를 함께 쓸 것을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응했다. 루돌프 머리띠를 쓴 유키 구라모토라니. 게다가 머리띠를 쓴 그는 마치 루돌프의 걸음처럼 웃음을 두어 번 흔들더니 "산타 할아버지!"라고 외쳤다. 현장에 있던 모두를 웃게 만든 멘트였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그의 인상 목록에 '마음 좋고 귀여운 피아니스트'를 추가했다. 그의 음악에서부터 만남, 인터뷰, 연주까지 지켜보니, 십이면체 주사위의 면마다 그의 다른 모습들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 주사위는 아마 무게는 묵직하고 색은 차분하며, 귀여운 장식이 몇 개 새겨져 있을 것이다.

음악에는 만든 이와 연주하는 이의 모습이 스며드는 법이니, 그의 음악에서 들리는 따뜻함과 섬세함, 정중함은 모두 오랜 세월 그가 닦아온 모습이라고 해도 좋겠다.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연습하던 청년 시절부터 귀엽고 친절한 예술가가 되기까지 그가 쌓아온 시간을 매년 만나볼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오늘의 공연에서 그와 그의 음악이 빛나는 모습을 다같이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유튜브버 겸 작가 김겨울

PROGRAM NOTE

Part 1.

베토벤 로망스 2번 바장조, 작품번호 50
L. v. Beethoven Romance No. 2 in F Major, Op. 50

'로망스'(romance)란 본래 소설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로맨틱'(romantic)은 바로 이 '로망스'에서 나왔는데, 즉 '낭만적'이라는 말은 소설 같은 일이라는 의미죠. 실현되길 바라는 꿈부터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몽상까지, 이러한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낭만 예술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에 '로망스'는 바로 그러한 음악 작품의 제목으로도 사용되었죠. 이러한 점에서, 베토벤(1770-1827)이 1800년을 중심으로 작곡한 두 곡의 로망스는 낭만 시대의 시작을 선언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연주되는 <로망스 2번>(1798)은 '느리게, 노래하듯이'(Adagio cantabile)로 지시되어있습니다. 이 말처럼 여유가 가득하고 노래하는 듯한 선율이 곡을 이끌죠. 오늘날 베토벤의 작품으로서 가장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진 작품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곡이 시작하면 서주 없이 곧바로 바이올린 독주가 주제 선율을 연주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시 흔치 않았죠. 이후 관현악과 번갈아가며 변주와 재현을 반복합니다. 중간 부분에서 단조로 바뀌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요, 다양한 표정으로 변주한 후에 조용히 마칩니다.

CREDIA

니콜로 파가니니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나단조, 작품번호 7 중 3악장 '라 캠파넬라'
Nicolò Paganini 'La Campanella' from Violin Concerto No. 2 in b minor, Op. 7

파가니니(1782-1840)는 23세 때에 루카의 바치오키(Baciocchi) 궁정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에 안주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1809년 말에 약 4년간 몸담았던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이탈리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받았고, 1828년에 유럽 투어를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슈베르트는 그해 빈에서 있었던 그의 연주에서 천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때부터 파가니니가 악령에 씌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바이올린 협주곡 2번>은 이탈리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얻었던 1826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악장 중 3악장이 연주되는데, 첫 주제가 연주될 때마다 작은 종을 연주하는 것에서 '작은 종'이라는 의미의 '라 캠파넬라'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현악의 음악적 제스처와 바이올린 독주의 하모닉스 주법으로 이 종소리를 모방하죠. 이렇게 이 곡은 투명한 음향과 경쾌한 분위기, 집시풍의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3번 가장조, 궤철편호 488

W. A. Mozart

Piano Concerto No. 23 in A Major, K.488

1781년에 고향 잘츠부르크를 떠나 빈으로 이주한 모차르트(1756-91).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곳에서 모차르트는 1782년 가을부터 1786년 겨울까지 약 4년간 무려 열다섯 곡의 피아노 협주곡(11번~25번)을 쏟아내며 존 재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곡들은 자신의 이전 작품들이나 선배들의 기존 작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30분을 넘나드는 장대한 규모에, 각 악장의 감성적 차이를 넓혀 극적 요소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관현악은 관악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화려한 음색을 들려주며 반주의 역할을 넘어서죠. 모차르트는 이렇게 피아노 협주곡을 교향곡에 필적하는 장르로 올려놓았고, 이 작품들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1785~86년 사이의 겨울은 특별했습니다. 모차르트는 이 기간에만 22번부터 24번까지 세 개의 피아노 협주곡을 연이어 완성하면서, 이러한 특징을 한창 발전시켰죠. 동시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1786)도 작곡 중이어서였는지, 이 협주곡들은 다른 협주곡에 비해 극적인 특징이 더욱 돋보입니다. 특히 오늘 연주하는 <피아노 협주곡 23번>은 2악장이 그의 모든 협주곡 중에서 올림바단조로 작곡된 유일한 악장이라는 사실 덕에, 이러한 특징이 더욱 도드라져 보이죠. 올림바단조는 분명 모차르트가 선호하는 조성은 아니었습니다만, 애수의 미학이 깊이 자리하고 있는 모차르트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악장 '빠르게'는 관현악의 긴 서주로 시작합니다. 노래하는 듯한 제1주제와 불안한 기분을 반음계적인 행으로 해결하는 제2주제가 예고편처럼 미리 제시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등장하는 피아노도 이 두 주제를 또다시 제시하죠. 그리고 제3의 주제도 들려줍니다. 이 주제들은 크게 대조적이지는 않아 자연스럽게 연결되고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2악장 '느리게'는 가장 깊은 슬픔의 끝에 이릅니다. 흐느끼는 듯한 피아노의 감성적인 선율은 현악의 음습하고 불안한 음향 위에서 더욱 가슴을 저미게 하고, 셋잇단음과 도약이 특징적인 리듬에서 외로운 무희의 애절한 춤사위가 어른거립니다. 중간 부분에서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분위기를 밝게 바꿔주지만, 다시 슬픔을 노래하며 마무리합니다.

3악장 '매우 빠르게'는 피아노의 발랄한 터치로 언제 그랬냐는 듯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과감하고 빠른 장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중에 간혹 2악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듯 살며시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슬픔은 가슴 속에 묻어두고,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듯 밝은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글 |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



PROGRAM NOTE

Part 2.

01. On A Sentimental Snowy Day #363 c# minor

이 문장은 눈이 가끔만 내리는 지역에 어울리는 제목일지도 모르겠네요. 매일같이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눈이 로맨틱한 감정을 갖기가 참 어렵죠. 자 그럼 눈이 가끔 내린다고 가정해 볼까요. 어느 겨울날 흩날리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 거리, 지붕, 정원 그리고 연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눈으로 아름답게 덮여가면, 로맨틱한 분위기로 알맞은 무대가 되겠죠. 이러한 심정을 피아노의 오른손으로 하늘하늘 내리는 눈의 정경을, 왼손으로는 멜로디를 연주하며 세레나데(사랑의 노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02. Warm Affection #200 A Major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지켜보는 사랑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할까요. '아련한' 사랑이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림자 속에서나마 응원해주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싶은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로 연주하는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고,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씨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씨의 CD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곡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ABA형식으로, B부분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로 감7화음(dim7th)을 잘 연결하여 미묘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을 자아내는 데 성공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03. Tears For You #323 a minor

전체적으로는 슬픈 멜로디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좋은 날들의 추억이나 희망의 멜로디를 삽입했습니다. 눈물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으로, 어떤 종류의 위로와 위안이 되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아노와 현악 합주 스타일로 표현한 것도 있으나, 이번에는 바이올린 독주가 빛나도록 바이올린다운 프레이즈를 더한 새로운 편곡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04. Fantastic Night #169 b minor

특별히 겨울이 아니어도 되기는 하지만, 멋진 카페에서 적당히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맛있는 요리와 술을 앞에 두고 조금은 들뜬 기분 좋은 대화를 커플로 즐기고 있는... 그런 풍경이 그려지는 타이틀입니다. 세계는 그런 경험이 없네요.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기억이 나지 않네요... 이 곡은 사실 매우 즉흥적인 곡입니다. Fantastic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기묘한 기분'이라는 타이틀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조금 기묘한 해설이라 죄송합니다.

05. Rudolph The Red Nosed Reindeer Marks John D #942 F Major

이 곡의 분위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루돌프가 아니라 땅 위의 길을 즐겁게 적당한 속도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저와 동년배의 순록일 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때로는 술에 취해서 코나 코 주변이 빨갛게 되기도 합니다. 아 혹시 비타민B 부족이려나요...? 첫 번째 코러스를 연주한 뒤에는 유명한 캐롤의 프레이즈 한편을 살짝 읊조리는 듯한 즉흥적인 경과부가 있습니다. 이런 음악적인 장난도 즐겨주세요.

06. When You Wish Upon A Star Leigh Harline Ab Major

월트 디즈니 명곡중의 명곡. 사람에게 있어 별이란 신비한 것, 성스러운 것, 동경의 대상일테지요. 영화 <피노키오>의 메인 테마송으로 반주가 매우 호화로운 악기 편성의 화려한 곡이었습니다. 그 곡에, 피아노 한 대만의 솔로로도 듣기 좋으시도록 넓은 음역대에 걸친 반주형태를 사용하거나 왼손이 멜로디를 받아내거나, 여러 겹의 화음을 사용하는 등, 조금 공들인 편곡을 해 보았습니다. 같은 작품 속 다른 곡의 멜로디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인가 콘서트에서 연주 했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즉흥적인 연주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끝이 날 지 기대하면서 들어주세요. 미지와의 조우일지도 모르겠네요.

07.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Hugh Martin, Ralph Blane 1943 Db Major

원곡은 노래이지만 가사 없이도 그 자체로 훌륭한 멜로디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솔로 편곡을 위해 화성적으로는 모던 재즈의 기교를 넣어 보았습니다. 본래 영화를 위한 삽입곡으로 처음에는 그 장면에 맞는 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가사가 일부 변경되어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 의 의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알려진 것 같습니다. "Hang a shining star above the highest bough" 가장 높은 가지 위에 빛나는 별을 장식하자... 라니, 참 멋지네요.

08. In The Evening #130 b minor

해질녘이란 잠시 안도하는 기분과 약간 멜랑콜리한 감정이 뒤섞인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 울적한 멜로디의 이 곡은 조금 멜로드라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중에 슬쩍 스트링이 더해지는데요, 점차 감정을 고양시켜 철저히 서정적으로 곡을 이끌며 진행되어 갑니다.

09. Eternal Love #162 G Major

이 곡은 어느 항공사와 관련된 음반을 위해, 다음 곡인 <Soaring>과 같은 시기에 작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연주할 기회가 없어서 편곡을 다시 해야 했는데요, 오케스트라와 피아노가 제법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동경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스트링의 인트로에서, 아름다운 테마를 피아노가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기분이 고양되어 갑니다. 저의 곡 중에 <Timeless Love>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의 멜로디와 조금 닮은 구석도 보입니다. 제목도 괜찮죠? '영원한 사랑' 입니다. 영원한 사랑을 갈구하다가 그만 순간적인 짧은 사랑에 돌진하는 것 같네요...

10. Soaring

#161

Eb Major

오늘은 어쩌면 제가 산타 역할을 하는 입장일지도 모르겠네요. 산타 혼자서 선물을 다 전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믿음직스러운 루돌프들, 이 아닌 솜씨가 좋은 연주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곡은 비행기나 새가 활주를 시작하는, 즉 평온한 서곡에서 점차 템포가 올라 드디어 하늘을 날아 오르는, 비상(Soaring)하는 이미지의 곡입니다.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루돌프들이 끄는 썰매에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득 싣고 눈 덮인 마을이나 숲의 밤하늘을 몽환적으로 날아다니는 정경을 상상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 Paris, Winter...

#046

e minor

영어 제목 Paris, Winter... 에 있듯이, 이 ...! (점점)이 마음의 흔들리는 기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미심장한 타이틀로,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Full version인 이 편곡에서는 먼저 플루트가 멜로디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피아노가 심플한 멜로디로 이어가는 도중, 현악 파트의 각 성부에서 노래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멜로디에 어울려 갑니다. 각 악기가 각각의 감정을 큰 소리로 표현하는 부분 등 마치 인생의 가락을 표현하는 듯 합니다. 제목에 대해서는 각자의 추억을 기본으로 프랑스의 Paris가 아닌 한국 Seoul에서도, 일본 Kyoto도 괜찮겠지요. 지금은 겨울이긴 하지만 계절은 돌고 돕니다. 각각의 계절에 여러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지요...

12. Lake Louise

#047

A Major

캐나다 록키의 보석이라 불리는 맑고 찬 아름다움을 가득 담고 있는 루이스 호수. 이 호수의 이름을 빌려 1984년경에 작곡했습니다. CD로도 발표된 것이 1986년 이었는데 조금씩 세계에 알려져 요즘에는 세계 많은 곳의 음악가분들이 이 곡을 연주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기쁩니다. 첫 앨범 <Lake Misty Blue>에서의 연주가 명상적이었던 데 비해 지금의 소규모 관현악 반주의 편곡에서는 계속 희망적이고 밝음으로 가득 찬 약동적인 느낌까지도 들게 하는 연주입니다. 시원시원하고, 상쾌하고, 피아노스러운 멜로디 등 저 스스로도 특히 마음에 드는 곡입니다. 이후에도 오케스트라나 독주 현악기 등을 함께 여러 스타일로 녹음하였습니다. 바이올린과 듀오 버전을 연주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오늘은 앨범 <Concertino>의 악기 편성 때보다도 더욱 호화로운 관현악 반주 스타일로 연주할 수 있게 되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글 | 유키 구라모토





겨울에 전하는 유키 구라모토의 따스한 선물...
포근하고 친숙한 음악들로 가득한 윈터 컬렉션!

유키 구라모토 <로맨틱 윈터> YUHKI KURAMOTO ROMANTIC WINTER



CNLR 1914(1CD)

Paris,Winter...(Reminiscence ver.)
When You Wish Upon A Star 등 총 8곡 수록!

로맨틱한 선율을 담은 따스한 피아노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 2019년에 선보이는 겨울 스페셜 미니 앨범인 이 작품에는 평소 공연을 통해 연주했던 겨울 테마 곡들에 크리스마스 공연을 통해서만 들려주었던 커버 곡을 더한 사랑스런 겨울 멜로디로 가득하다. <피노키오> 수록곡 'When You Wish Upon A Star'와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등 친숙한 겨울 명곡들에서 유키 구라모토의 겨울 명곡 'Paris,Winter...' 등이 피아노 솔로와 스트링과의 협연으로 전해온다.



- * 7인치 EP 사이즈 스페셜 팩키지
- * 커버 by Kate Lee (일러스트레이터)
- * 유키 구라모토의 곡 해설 수록



17 **B**

Am7 D7 GMaj7 C

21

F#m7-5 B7 Em B7/F# Em/G G#dim7

25 **C**

Am7 D7 Bm7 Em

29

Am Am/G F#m7-5 Am/B B A#dim7/B B7

poco rit.

D.C. al Coda

33 Φ

Am B7 Em



EDIA

피아니스트, 작곡 & 편곡

유키 구라모토

Pianist, Composer & Arrangement

YUHKI KURAMOTO

1951년 사이타마현 우라와시에서 태어난 유키 구라모토는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였다. 학창시절에는 라흐마니노프와 그리그 등의 피아노 협주곡에 심취하여, 아마추어 교향악단에서 독주자로 활동하는 등 피아니스트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유키 구라모토는 일본의 명문 도쿄공업대학에 진학하여 응용물리학을 전공하면서도 연주자로서의 활동을 병행하였다. 응용물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음악가와 학자의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음악가의 길을 선택하였고, 연주는 물론 클래식 작곡과 편곡, 그리고 팝 음악 연구에 몰두했다.

1986년 유키 구라모토는 첫 피아노 솔로앨범 <레이크 미스티 블루(Lake Misty Blue)>를 발표하였는데, 수록곡 중 '레이크 루이즈(Lake Louise)'가 크게 히트하면서 데뷔에 성공하였다. 이후 영국 런던 필하모니와 협연한 앨범 <Refinement 리파인먼트>를 발표하여 높은 음악성으로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는다. 구라모토는 음반 발매 이외에도 아사히TV의 '호텔', NHK의 '한번 더 키스(쿠보즈카 요스케, 윤손하 주연)' 등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에도 참여하였다. 그의 음악은 케이블TV, 레이저 디스크 등의 영상음악뿐만 아니라 일본항공 등 항공사의 '인 플라이트 뮤직(In Flight Music)'으로도 각광받아 왔다.

또한 한국에서도 1999년 예술의전당 콘서트 홀에서 개최된 첫 내한공연이 매진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매년 내한공연에서 서울 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가장 사랑받는 피아니스트로 자리잡게 된다. 더불어 2004년 일본 레코드대상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2006년 6월에는 일본 음반데뷔 20주년 전국 투어를 펼쳤다. 유키 구라모토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조수미', '신승훈' 등 한국 음악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2011년 7월에는 처음으로 뮤지컬 음악 작곡에 도전하여 일본 창작 뮤지컬 <폭풍의 언덕>의 전곡을 작곡, 그의 음악성이 다시 한번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여수 엑스포 2012에서 일본관의 모든 파빌리온의 음악을 작곡, 연주하였으며,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에 어울리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선보이는 등 폭넓은 음악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었다. 2015년 9월에는 레이크 루이즈 발매 30주년 기념 공연, 2019년 5월에는 내한 20주년 기념 13개 도시 전국 투어 공연을 선보였다. 2009년부터 매년 전석 매진의 행렬을 이어오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바이올린

장유진

Violinist

YooJin Jang



2016년 일본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은 학구적인 곡 해석과 폭발적인 기교로 관중의 눈과 귀를 무대로 집중시키는 결출한 카리스마를 가진 연주자이다. 특히 장유진은 바이올린으로 창조해내는 소리의 섬세한 질감, 그리고 음악 전달력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말보로 체임버 뮤직페스티벌, 카라무어 라이징 스타 시리즈, 마이러 헤스 메모리얼 콘서트 시리즈, 라비니아 스티븐 인스티튜트 온 투어, 올드 사우스 미팅 하우스, 이사벨라 스투어트 가드너 미술관 등 보스턴, 뉴욕을 중심으로 호평을 받으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2017-2018 시즌에는 일본에서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및 독주회, 음반 녹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데뷔 무대를 앞두고 있다.

특히 실내악에서 열정과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장유진은 2009년 KNUA 스트링 콰르텟을 결성하여, 같은 해에 실내악 부문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쉐로스 바이커스 장학금을 수상했다. 2012년부터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솔리스트들인 바이올리니스트 강수연,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심준호와 함께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으로 활동 중이다.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은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작품 전곡 연주> 등 도전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프로그램을 완성도 높은 연주와 함께 선보이며 실내악 음악계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찍이 수많은 콩쿠르에서 두각을 보인 장유진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메뉴힌 콩쿠르 등에서 수상하였으며, 일본 무네츠클루 콩쿠르, 센다이 국제 음악 콩쿠르, 러시아 영 뮤지션을 위한 차이콥스키 홀랜드 국제 콩쿠르 등에서 우승하였다.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사사 김남윤)를 수석 졸업 한 후 도미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연주가이자 교육자인 미리암 프리드 문하에서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과정과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 재학하며 TA로 임하고 있다. 장유진은 음악원 역사상 보기 드문 최고연주자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수학한 연주자로, 지성과 감성을 고루 갖춘 특출한 예술가의 탄생을 예고되고 있다.



피아노
한지호

Pianist
Chi-Ho Han



피아니스트 한지호는 차세대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서 국제 콩쿠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2014년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독일 뮌헨 ARD콩쿠르 피아노 부문 우승 및 청중상 현대음악 특별상을 휩쓸며 화려한 커리어를 쌓고 있다.

또한 2016 퀸 엘리자베스 국제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4위, 2009 오스트리아 비엔나 베토벤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3위, 2011 독일 슈베르트 국제음악콩쿠르 2위와 특별상, 독일 본 베토벤 텔레콤 국제피아노콩쿠르 2위와 청중상, 2014년 미국 지나 박하우어 국제피아노콩쿠르 2위에 입상하였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뮌헨 체임버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라디오심포니오케스트라,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오케스트라, 스위스 빈터투어 오케스트라, 미국 유타 심포니오케스트라, 도르트문트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슬레스비히홀슈타인 심포니오케스트라, 쉐젠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내외 다수의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독일 루르 페스티벌, 키싱어 여름 페스티벌, 라인가우 음악제, 스위스 보덴제 음악제,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경기도문화의전당 피스앤 피아노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음악페스티벌에 초청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중국과 2015년 일본 연주 투어를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 뮤직페어라인 황금홀, 독일 베토벤 할레,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뮌헨 헤라클래스 홀,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중국 베이징 Forbidden City Concert hall을 포함한 세계 여러 저명한 홀에서 연주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쇼팽과 슈만의 피아노작품을 담은 음반 'Chopin & Schumann Piano Works' 이 독일 Acousence Classics 레이블에서 발매되었다.

1992년 출생한 피아니스트 한지호는 한국에서 김지애, 피경선교수를 사사하였으며 서울예고 재학 중 도독하여 에센 폴크방 국립예술대학교에서 아르놀프 폰 아르눔을 사사하고 졸업하였다.

현재 하노버 국립음악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리에 바르디를 사사함과 동시에 이탈리아 인터내셔널레이크 코모 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있다.



지휘자 백윤학

Conductor
YoonHak Baek



지휘자 백윤학은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음악가로 서울과학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부 졸업 이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지휘전공 편입, 동 대학원 수료 후 도미하여 Curtis 음악원(관현악 지휘)과 Temple University(오페라 코치)에서 공부하였다.

2017년 팬텀싱어와 함께 하는 KBS 교향악단 화이트데이 콘체르토, 토요타 클래식 공연, 2016년 롯데 콘서트홀 송년/제야 음악회, 2015 새해맞이 음악회 희망 창조, 코리아에서 KBS 교향악단을 지휘하였고, 서울시향, 부산시향, 대구시향, 수원시향, 부천시향, 군산시향, 코리아 콤팩 오케스트라, 마드리 실내악단 등을 지휘하였다. Bank of Hope Orchestra의 지휘자로서 2014년부터 LA의 Dorothy Chandler Pavilion과 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정기적으로 지휘하고 있으며, 2018년 뉴욕 LeFrak Concert Hall에서 성공적인 연주를 마쳤다. 2016년 9월 Harmony for Peace Foundation 주최 Peace Concert의 지휘를 맡아 미국 Philadelphia의 Verizon Hall 데뷔 무대를 가졌다. 같은 재단 주최로 2015년 7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폭 투하 70주년 추모 음악회 지휘를 맡았다.

오페라 지휘자로서 미국 ConcertOPERA, Philadelphia 의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다수의 오페라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조르다노의 '안드레아 세니에', 구노의 '파우스트', 모차르트의 '코지판투테'를 체임버 오케스트라로 편곡하여 공연하였다. 또 OperaDelaware와 Opera New Jersey에서 부지휘자 겸 반주자로 활동하며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마술피리',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맥베스', '포기와 베스' '유쾌한 미망인' 등 다수의 오페라 제작에 참여하였다.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필름 콘서트 지휘자로서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픽사 인 콘서트, 미녀와 야수, 스타워즈 등을 지휘하였다.

2014년부터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 조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

DITTO Orchestra



디토 오케스트라는 2008년 조직되어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라 불리는 디토 페스티벌의 상주 오케스트라이자 815 DMZ 평화콘서트, 크레디아 파크콘서트 등 국내 대형 클래식 공연의 주요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의 강점은 레퍼토리의 유연성과 젊은 에너지이다.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젊은 지휘자 정민과 아드리엘 김이 수석지휘자를 역임 했으며, 악장과 단원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20~30대 젊은 연주자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창단 후 정민, 아드리엘 김, 와드 스테어(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혼나 테츠히(베트남 국립 오케스트라 상임 및 음악감독), 최수열(서울시립 교향악단 부지휘자) 등의 지휘자와 함께 했으며,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피아니스트 임동혁, 김태형,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고토 류, 신지아(신현수), 조진주, 한빈(아마데우스 레오폴트), 김다미, 기타리스트 무라지 카오리 등과 유수의 연주자들과 협연하였다.

디토 오케스트라는 디토 페스티벌 상주 단체로 매년 차이콥스키, 브람스,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 등 정통 심포니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매년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유키 구라모토 내한공연의 파트너로서 함께하고 있으며, 장한나 & 황병기 심포니 공연, 크레디아 파크콘서트 <피아노 파라디소>, <조수미 라 판타지아>, <로맨티스트>, <디즈니 인 콘서트>, 815 DMZ 평화콘서트, 바비 심포니 음악회 <Barbie at the Symphony>,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등을 안정된 실력과 양상בל을 바탕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디토 오케스트라의 교육 프로젝트인 <디토 카니발>은 클래식과 비주얼 퍼포먼스를 접목하여 호평 받은 바 있다.

디토 오케스트라는 2013년 안양문화예술재단 상주예술단체로 선정, 정민의 지휘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와 <돈 카를로> 콘체르탄테 공연에 참여했다. 앞으로 패밀리 콘서트, 관객개발 사업, 음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며, 2017-2018년부터는 디토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로서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서초문화재단 상주단체로 활동했다.



ORFEO

More than Cinema

음악을 보다, 영화를 듣다



오르페오 예약문의



CREDIA

BARCO

STEINWAY LINGDORF

UNITEL



The Class Hyosung

더클래스 효성은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는 철학을 지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선택한 공식딜러입니다.

끊임없는 투자와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클래스 효성은 이제 자동차를 넘어 Premium Lifestyle Solution Provider로

끊임없는 고객만족과 서비스를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Mercedes-Benz

더클래스 효성

전시장 : • 강남대로 02) 575-7500 • 송파 02) 3434-4000 • 분당정자 031) 786-6000 • 안양평촌 031) 689-8900 • 구리 031) 579-0900
 • 용인수지 031) 5183-9200 • 스타필드하남 031) 8072-8900 • 청주 043) 299-9000 • 천안 041) 620-7000 • 인종 중고차 죽전 031) 786-6171
 서비스센터 : • 강남대로 02) 570-1111 • 서초 02) 3488-2400 • 도곡 02) 575-7340 • 송파 02) 2152-3333 • 죽전 031) 786-6100
 • 안양평촌 031) 596-2600 • 구리 031) 579-0970 • 용인수지 031) 290-3700 • 청주 043) 299-9090 • 천안 041) 620-7070
 고객센터 : 1899-0808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S 350 d (배기량: 2,925cc, 공차중량: 2,130kg, 9G-TRONIC), 복합연비: 13.0km/ℓ (도심연비: 11.3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복합CO2 배출량: 148g/km · S 450 Long (배기량: 2,996cc, 공차중량: 2,140kg, 9G-TRONIC), 복합연비: 8.6km/ℓ (도심연비: 7.5km/ℓ, 고속도로연비: 10.5km/ℓ), 복합CO2 배출량: 205g/km · S 560 Long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130kg, 9G-TRONIC), 복합연비: 8.4km/ℓ (도심연비: 7.2km/ℓ, 고속도로연비: 10.5km/ℓ), 복합CO2 배출량: 211g/km · Mercedes-AMG S 63 4MATIC+ Long (배기량: 3,982cc, 공차중량: 2,275kg, AMG SPEEDSHIFT MCT 9-Speed), 복합연비: 7.8km/ℓ (도심연비: 6.7km/ℓ, 고속도로연비: 9.8km/ℓ), 복합CO2 배출량: 226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Boston

PIANO

DESIGNED BY STEINWAY & SONS®

스타인웨이의 DNA를 물려받은 보스톤 피아노

보스톤은 명품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설계가 적용되고 따라올 수 없는 가격대에 고품격 연주 경험을 선사합니다.



GP215 ▶
길이 : 215 cm



GP193
길이 : 193 cm



GP178
길이 : 178 cm



스타인웨이가 디자인한 피아노 *Boston* PIANO

(주)코스모스악기에서 만나보세요.

스타인웨이 공식수입원

(주)코스모스악기

피아노사업부 02) 522-8844

대구지점 053)629-8844

부산지점 051)804-8844

광주지점 062)515-8844

대전지점 042)489-8844

COSMOSMUSIC.COM

빈소년 합창단

신년음악회

*Vienna Boys Choir
New Year's
Concert*



2020. 1. 18 SAT 5PM & 1. 19 SUN 5PM 롯데콘서트홀

합창지휘 | 마놀로 까닌 합창 | 빈 소년 합창단 오르간 | 박소현

샤르팡티에 바빌론 강가에서, 피아졸라 리베르탱고, 슈트라우스 2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왈츠

R석 12만원 | S석 10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감동의 무대가 있는 곳에 크레디아가 있습니다.



핑크퐁 클래식 나라

5.1(FRI) - 5.2(SAT) 롯데콘서트홀

손열음 피아노 리사이틀

5.13(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리처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5.20(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디즈니 인 콘서트

5.23(SAT) - 5.24(SUN)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5.28(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머레이 페라이어 &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6.7(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에스메 콰르텟 리사이틀

6.9(TUE) 롯데콘서트홀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7.7(TUE) - 7.8(WED)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정명훈 &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8.23(SUN)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상 트리오 <더 트라이어드>

8.29(SAT)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클라라 주미 강 & 손열음 듀오

9.4(FRI)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미샤 마이스키 첼로 리사이틀

9.22(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임동혁 피아노 리사이틀

10.11(SUN) 롯데콘서트홀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11.6(FRI) 롯데콘서트홀

이차크 펄만 바이올린 리사이틀

11.17(TUE)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

11.20(FRI) 롯데콘서트홀

백혜선 피아노 리사이틀

11.26(THU)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크리스마스 뮤직 페스티벌

12.24(THU) - 12.26(SAT) 롯데콘서트홀

술술클래식: 더 콘서트

3.14(SAT) 6.13(SAT) 9.12(SAT) 12.5(SAT) 롯데콘서트홀

합리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부담없는 선택! Club BALCONY 1577-5266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구라모토 &
친구들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유료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유료회원에게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클럽발코니닷컴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lub BALCONY.

www.clubbalcony.com